

79개 저축銀 1.1조 순익... 빅5가 1/3 '부익부 빈익빈'

대-중소형, 지방-서울간 양극화 지방, 서울보다 순이익 64% 줄어 "영업구역 제한이 지방 저축銀 발목 헛살론 등 의무대출 비율 개선돼야"

국내 저축은행의 '빈부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저축은행 업계가 벌어들인 사상 최대 실적의 대부분을 상위 대형 저축은행이 견인하면서 지방 중소 저축은행의 영업 규제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SBI·OK·웰컴·한국투자·유진 등 상위 5개 저축은행의 작년 경영공시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당기순이익 합계는 3846억원에 달했다.

각 은행별 순이익은 ▲SBI저축은행 1310억원 ▲OK저축은행 957억원 ▲웰컴저축은행 633억원 ▲한국투자저축은행 563억원 ▲유진저축은행 38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 1조1185억원 중 34.3%를 차지한다.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6%에 불과한



저축은행 수익이 서울과 지방,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특정사 실과 관계 없음.

상위 5개 저축은행이 전체 저축은행의 순이익 중 절반에 가까운 수익을 거둬들인 것.

특히 대형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 증가율은 전체 저축은행 순이익 증가율의 8배를 웃돌았다.

전체 저축은행의 작년 당기순이익은 지난 2017년 1조762억원에 비해 423억원(3.9%)이 증가한 반면, 대형 저축

은행들은 같은 기간 순이익이 939억원(32.3%) 증가해 전체 저축은행의 순이익 증가율보다 8배 이상 높았다.

서울과 지방 간 순익 차이도 뚜렷했다. 서울 소재 23개 저축은행을 제외한 지방 소재 56개 저축은행의 경우 전체의 64% 정도가 지난해보다 오히려 당기순이익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저축은행 업계가 최대 실적을 달

성했음에도 여전히 지방 중소저축은행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

이처럼 전체 저축은행 업계의 실적이 일부 대형 저축은행에 치우침에 따라 저축은행의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규제를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영업 구역은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서울 ▲인천·경기 ▲대구·경북·강원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전북·제주 ▲대전·충남·충북 등 6개로 나뉘어 있다. 각 구역에 위치한 저축은행은 지역 내 대출 비중을 유지해야 한다. 서울·인천·경기는 50%, 그 외 권역은 40%의 유지 의무가 있으며, 영업점과 비대면 채널 모두 규제 대상이다.

그러나 일부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권이 넓은 편이다. SBI저축은행은 서울·인천·경기·충청권·전라권·강원·경북권 등에서 영업이 가능하고, 웰컴저축은행은 서울·인천·경기·충청권·경남권 영업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영업 구역의 제한을 받는 지방 중소저축은행은 수년 동안 좋지 않았던 지방 경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모바일 대출 등 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채널 영업이 확대되고 있는 현재 금융업계의 상황에 따라 비대면 영업에 대한 의무대출 비율을 완화하거나, 헛살론과 같은 정책금융 상품에 대한 의무대출 비율을 낮추는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저축은행의 설립 취지가 지역 서민금융인 만큼, 영업 구역 제한을 풀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설립된 목적은 지역민의 금융 고민을 덜어주는 서민금융이라는 데 있다"며 "지방 저축은행의 영업 구역 제한을 풀어 전국적인 영업을 가능하게 한다면 도서 지역과 같이 금융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부분이 반드시 생길 수 있어 저축은행의 설립 취지에 따라 영업 구역 제한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한화생명 새 경험생명표 적용 '통합종신보험'

한화생명은 저해지 환급형 상품 '한화생명 스페셜통합종신보험'을 1일 출시했다. 이는 새로운 경험생명표를 반영해 기존 종신보험에 비해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어 가성비가 뛰어난 상품이다.

이번 상품은 사망보험금을 최대 1.5배까지 증액 가능해 보장자산을 최대화하는데 최적이다. 보장을 최대화했음에도 납입기간 동안은 해지환급금을 축소한 대신 납입이 완료되면 기존 종신보험 대비 환급률을 대폭 높인 것이 특징이다.

저해지환급형 상품답게 보험료도 저렴하다. 납입기간 동안 축소된 해지환급금을 재원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설계가 가능하다. 또 4월부터 변경돼 적용되는 제9회 경험생명표를 반영한 인하효



과를 누릴 수 있다.

한화생명은 저해지형은 30%형을 신설해 고객의 보험료 부담을 덜었다. 30% 저해지 환급형을 가입할 경우 최대 20%까지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김희주 기자 hj89@

진옥동 "사회 곳곳 '따뜻한 금융'의 온기를"

(신한은행장)

신한은행 2019 창립기념식
창립 최초 동반성장 고객 초청

신한은행은 1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진옥동 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창립기념식은 '신한과 함께 꿈을 키워가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창립 이래 처음으로 임직원뿐만 아니라 신한과 함께 성장해 가고 있는 고객을 초청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바리스타의 꿈을 키워가는 두드림 카페에서 진행됐다.

행사에는 ▲신한은행의 취업 및 창업 프로그램인 카페 두드림, 두드림 스페이스, 소호(SOHO)사관학교참가자 ▲순수 국내과 클래식 유망주를 발굴하기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1일 서울 중구 본점 '카페 두드림'에서 2019년 신한은행 창립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위한 신한 음악상 수상자 ▲신한은행이 후원 중인 발달장애인 연주단체 하트하트 오케스트라 관계자가 참석했다.

진 행장은 "신한은행의 성장에는 사회의 격려와 응원이 늘 함께해 왔으며 신한은행 또한 사회와 함께 꿈을 키우는 일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 그는 창업자에게는 행운목을, 취업자에게는 자필 응원문구가 적힌 다이어리와 카드 지갑을 직접 선물했으며, 하트하트 오케스트라에는 사랑의 악기를 기부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하트하트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은 신한음악상 수상자와 함께한 창립기념식 축하 공연을 통해 무대에서 프로 연주자와 함께 공연하고 싶다는 본인들의 꿈을 이룰 수 있었다.

진 행장은 "리딩뱅크를 열망한 신한 가족의 원대한 꿈이 통합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금융의 자부심'을 향한 도약의 발판이 됐다"며 "따뜻한 금융의 온기가 우리 사회 곳곳으로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자"고 강조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케이뱅크서도 증권계좌 개설 만들어요"

NH투자증권과 증권계좌 동시개설

케이뱅크는 계좌개설 시 증권계좌까지 동시에 개설할 수 있는 증권계좌 동시개설 서비스를 1일 출시했다.

케이뱅크 신규고객은 듀얼K 입출금 통장을 개설할 때 추가 본인인증 및 실명확인 없이 NH투자증권 모바일 증권나무(NAMUH)의 종합매매계좌까지 함께 개설할 수 있다.

기존 고객은 케이뱅크 '금융몰'에 금·적금'에서 '종합매매계좌'를 선택해 약관동의와 본인인증이 포함된 고객확인, 정보입력 3단계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케이뱅크 앱에서 은행과 증권 계좌의 현금 잔고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 자산관리의 편의성을 높였다. 단 증권계좌의 잔액은 즉시 출금 가능한 현금 예수금만 확인 가능하다.



이와 함께 종합매매계좌에 증권예금에 사용되지 않고 현금으로 남아있는 경우, 100만원 이상 보유 시 최고 연 1%(세전)의 금리로 예탁금융료가 제공된다.

나무 종합매매계좌를 개설한 고객은 모바일증권 나무 앱을 통해 국내주식, 해외주식, 발행어음, 펀드, 채권, 추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 로보어드바이저 등 NH투자증권의 금융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 /안상미 기자

신한카드 해외이용 특화 카드 프리미엄 'The BEST+'

신한카드는 1일 해외에서 사용할 때 항공 마일리지를 추가



로 적립해 주는 등 해외 여행·국내외 호텔·골프 영역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한카드 더 베스트 플러스(The BEST+·사진)를 출시했다.

신한베스트플러스카드는항공마일리지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전월 실적에 상관없이 대한항공 스카이패스는 일시불, 할부 이용액 1500원당 1마일리지, 아시아나클럽은 1000원당 1마일리지를 적립해 준다. /홍민영 기자

교보생명 종신보험 하나로 치매보장까지

교보생명은 1일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종신보험 하나로 치매보장까지 준비할 수 있는 '(무)교보실속있는치매종신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종신보험에 치매보장을 결합한 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사망과 중증치매를 평생도록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중증치매 진단 시 진단보험금(가입금액의 100%)을 받고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가입금액의 20%)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중증치매 없이 사망하면 사망보험금(가입금액의 120%)이 지급된다.

보험료 부담도 대폭 낮췄다. 가입 시 '저해지환급형(1형/2형)'을 선택하면 보험료 납입기간에는 '일반형'에 비해



해지환급금이 50%(1형), 30%(2형)만 적립된다. 이후 납입기간이 경과하면 해지환급금이 100%로 늘어 일반형과 동일해진다. 반면 보험료는 일반형에 비해 10~17% 량 저렴하다. 보험료는 40세 남자, 주계약 1억원, 20년납(기본형) 기준 1형(50%)은 24만3000원, 2형(30%)은 22만8000원이다. /김희주 기자